

신집거지와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 분석: 칭다오(靑島)정양(正陽)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우**

요 약

237

이 논문은 신집거지에서의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중국 칭다오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학부모들의 민족학교 선택의 상관성, 특히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변수들에 주목하며, 아울러 신·구집거지 민족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연구주제를 검토했다는 점, 향후 전통집거지·중국내 기타 신집거지·대표적인 해외 한인 거주지역 등과의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중국조선족, 신집거지, 민족교육, 실태, 정양학교, 선택 동기

* 이 논문의 질적인 향상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hyhgyj@163.com

I. 문제제기

이 논문은 중국조선족(이하 조선족으로 약칭)의 신집거지-칭다오(靑島)에서의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민족교육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조선족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조선족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민족교육의 각별한 의미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었다.¹⁾ 민족교육은 조선족의 전통집거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집거지에서의 민족 언어문자의 사용과 보존,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선족의 신집거지로의 ‘연쇄이주’(Chain Migration) 상황 혹은 조선족 이주자가 해당지역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Castles 외 2013)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주자들의 자녀교육 문제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신집거지에서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예성호 외 2014, 3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집거지 민족교육 연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달리, 신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통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연구, 특히 최근 들어 전통집거지 민족교육 쇠퇴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족교육 발전의 원심력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전통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대체로 교육환경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몇 편 안 되는

1) 조선족 민족교육 연구의 전문가인 박금해 교수에 따르면, 민족교육은 단지 사회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고 후대를 양성하는 교육본연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결속과 민족문화의 창달, 나아가 민족의식을 각인시킴으로써 우리민족의 반일독립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내 조선족이라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창출 및 그들의 경쟁력 신장과 위상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박금해(2012, V)를 참조.

신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²⁾ 이 논문이 신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은 행위자 차원의 미시적 접근, 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의 시각을 담아낼 수 있는 접근법을 강조하는 데 있다. 재중 한국인의 자녀교육 선택을 연구 주제로 한 예성호 외(2014)와 장수현(2013)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역으로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딜레마를 야기시키며 학교(이 논문에서는 민족교육)의 선택이 결국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학부모들의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현(2013)이 제시한 변수들인 비용, 교육이념과 방식, 교육의 질과 효율성 등은 본 논문의 분석적 검토를 위해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행 이후, 특히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글로벌화”, “대도시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박광성 2014), 칭다오는 중국내 조선족의 대표적인 신집거지이다. 조선족의 새로운 거주 판도가 형성되면서 현지 조선족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인데 동북3성을 제외하고 모두 어느 정도 자녀의 민족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민족교육이 제도적·인적·물적 면에서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칭다오라는 신집거지에서의 조선족의 민족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차원의 비교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전통집거지와 신집거지 간의 비교연구³⁾, 중국 내 조선족의 신집거지들 간의 비교연구, 그리고 대표적인 해외 한인 거주지역과의 비교연구 등이다.

2) 관련 연구로 박용옥(2008), 鄭信哲 외(2010)가 있다. 이 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특히 연해지역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당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조선족 공립학교로 다롄(大連)시 조선족학교가 있는데, 본 연구는 향후 개혁·개방과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 이동의 주요 목적지인연해지역 대도시에 있는 조선족학교 간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중요한 연구의의를 지닌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중국 칭다오 소재 정양(正陽)학교이다.⁴⁾ 정양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이유는, 중국 연해지역의 조선족 사립학교들이 하나둘씩 폐교되는 것과 달리 정양학교는 ‘건재’ 나아가 번영으로 “민족교육의 희망의 불씨”로 평가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양학교가 중국 산하이관(山海關)이남⁵⁾ 60만 조선족사회의 유일한 정규 민족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홍룡강신문 12/05/25). 따라서 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은 신집거지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현주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사회과학연구의 기본방법인 문헌연구방법 외에 학교 관계자, 학부모, 현지 교육·민족·언론 관계자, 대한민국 주청도 총영사관 교육담당 영사와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한다. 우선, 연구자는 ‘칭다오 한인사회에서의 민족교육 현황’을 주제로 2012년 10~11월, 2013년 3월 칭다오의 조선족학교와 한국계 국제학교에 대한 방문조사(주로 학교 관계자와의 개별인터뷰)를 진행했고, 2013년 8~9월, 11월에 걸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현지 조선족 민족교육 관계자들과 개별인터뷰를 진행했다. 더불어 정양학교의 수업과 행사에 대해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아울러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조글로’(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와 ‘중국조선족종합뉴스’의 조선족 민족교육 관련 글과 댓글 등을 통해 연구자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위의 문제제기에서 연구자가 주목했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칭다오 지역에서의 민족교육 실태, 즉 정양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 그리고 이것이

4) 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경우에 따라 칭다오 지역의 다른 조선족학교인 서원장(西元莊)학교(소학교) 관련 내용도 소개할 것이다.

5) 중국인들에게 산하이관은 동북3성과 기타 지역을 경계 짓는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정양학교 선택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칭다오의 민족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진통집거지 학교의 민족교육 내용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의 분석을 기초로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이 논문은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신집거지에서의 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대상은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 또는 쇠락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에 한정한다. 더불어 ‘신집거지’에서의 ‘민족교육’이 결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국적 환경(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서의 ‘재중한인’의 ‘자녀교육’을 논의한 대표적 연구도 선행연구의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상술하다시피 이 논문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로 박룡옥(2008)과 鄭信哲 외(2010)가 있다. 박룡옥(2008)은 연해도시 조선족 사립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는 베이징(北京)의 장백(長白)학교, 삼강학원(三江培訓學校), 그리고 칭다오의 조선족 사립학교인 벽산학교(碧山學校)와 서원장(西元莊)학교를 고찰한 시론적 연구이다. 동 연구의 특성이 시론적, 그리고 개론(概論)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鄭信哲 외(2010)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인구이동 속에서 나타난 도시에서의 민족교육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鄭信哲 외(2010)와 박룡옥(2008)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칭다오 내지 연해지역의 조선족 민족교육을 검토함에 있어서 구조, 환경이라는 거시적 요인들을 중요시함에 따라 결론 및 시사점 또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개선, 특히 조선족 공립학교의 설립에 대한 호소로 귀

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환경의 결정성에는 공감하나, 연구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의 시각을 담아 낼 수 있는 접근법을 강조한다. 이는 한편으로, 행위자로서의 신집거지 조선족사회의 구성원(특히 지성인)들이 민족교육이 직면한 제도나 정책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즉 신집거지에서의 공립학교 설립이라는 목표를 위한 조선족들의 전략과 실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위자 시각에 대한 강조는 현재 설립된 사립학교에 이어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다수의 조선족 학부모들이 과연 자식을 조선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보낼까, 즉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동기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식을 한족(漢族)학교에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세대와 달리 중국의 주류문화에 잘 적응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 구조와 행위자 관계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난해한 쟁점이며, 이는 사회과학 이론을 넘어 인문과학 일반, 특히 철학적 세계관 및 인식론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즉 세계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문제이다(방인혁 2008, 104). 칭다오의 민족교육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상술한 제도·정책 등 구조적 한계만으로 설명할 경우, 자칫 행위자 요인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재산출되고 수정되어 새로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Giddens 1979, 5, 69; Wendt 1987, 339, 350, 356, 360-361).

또한 조선족이 주류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민 집단·소수민족 집단이라는 점, 자신이 아닌 후대들의 미래와 직결된 사인이라는 점 등의 이유는 전통집거지에서의 학교 선택에 비해 더욱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짐⁶⁾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딜레마 상황, 즉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 선택

6)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延邊州教育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통집거지의 경우, 최

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조선족학교 선택 동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특히 민족교육의 발전 또는 쇠퇴)를 검토함에 있어서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행위자 차원의 요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국적 환경-칭다오와 상하이(上海)라는 ‘신 집거지’에서의 재중한국인들의 자녀교육 선택을 주제로 한 예성호 외(2014)와 장수현(2013)은 이 논문의 선행연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연구이다. 장수현(2013)은 중국 칭다오지역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교육현장에 초점을 맞춰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이들의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들의 교육적 선택과 관련하여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초국적 교육환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국제화교육, 국민교육, 현지화교육)에 대한 도식화,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야기한 다양성의 딜레마, 즉 학부모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정책적·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을 두루 고려한 전략적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성호 외(2014)는 상하이 지역 거주 한국인들을 ‘초국가주의자’(Transnational Migrant)라고 전제하고, 개인 행위자 차원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재중한국인 자녀들이 ‘초국가주의 역동성’(Dynamics of Transnationalism)이라는 교육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장수현(2013)이 제시한 초국적 교육환경 요인과 행위자 선택을 결정짓는 변수들인 비용, 교육이념과 방식, 교육의 질과 효율성 등이나, 장수현(2013)에서 제시되었고 예성호 외(2014)가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한 국민교육(종족정체성), 현지화교육(이른바 ‘중국통’), 국제화교육(‘다양성과 자립심’), 그리고 이른바 ‘퓨전식 교육’(학교 선

근 한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정책적으로 조선족학생의 한족학교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한족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반대로 한족학생의 조선족학교 입학은 별 문제가 안 된다(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처장 P씨와의 인터뷰 2012/02/20). 이는 최우길(2012)에서 지적한 조선족 학계 통폐합을 가속화한 원인 중 하나인 이른바 ‘외류(外流)현상’이다.

택의 유동성, 상이한 교육 모델간 통합성)은 본 논문의 변수의 설정 및 검토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신집거지’에 맞춘 상술한 연구들과 함께, 전통집거지에서의 조선족의 민족교육 발전 또는 쇠락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전통집거지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반을 검토한 연구로 최우길(2012)이 있다. 동 논문은 조선족 교육의 문제점으로 민족학교의 통폐합, 학생 수의 감소, 언어 교육의 어려움, 능력 있는 교원의 감소, 교원 수급의 어려움, 학교 재정의 곤란, 가정교육의 붕괴 등을, 더불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인수학급교육, 이중·삼중 언어교육, 민족문화교육,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심리지도 등을 각각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상술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교육계와의 교류에도 주목하고 있다. 동 논문에서 분석된 문제점과 대응은 주로 교육환경적 측면의 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청다오 지역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 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제공해 준다.

각주 3에서 언급되다시피, 공간적 범위로 볼 때 전통집거지로 분류되나 청다오와 마찬가지로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수혜지역이고, 또한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의 중국내 이동의 주요 목적지의 하나인 대련의 조선족 민족교육을 다룬 이정은(2010)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정은(2010)은 중국에서의 민족교육은 중국의 국가와 종족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등이 드러나는 중요한 장이라는 데 주목해, 조선족 정체성 형성이 종족과 국가라는 개념들 간의 상호 추동 속에서 특히 소수민족 교육의 현장인 조선족학교에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가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실천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연구는 학부모들의 조선족학교의 선택이유,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민족학교의 환경적 제약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III. 신집거지-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

신집거지-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중국 내 조선족 신집거지 및 칭다오 집거지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민족교육’의 개념에 대해 정립과 함께 신집거지의 조선족 민족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본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칭다오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변수들과 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할 것이다. 더불어 분석과정에서 교육과정과 학부모들의 민족학교 선택의 상관성, 특히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변수들에 주목할 것이다.

1. 조선족의 중국내 이동과 신집거지의 형성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행 이후 조선족사회의 거주판도는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장경제 속에서 조선족사회가 겪은 변화는 중국의 기타 55개 민족이 겪은 변화에 비해 훨씬 격렬하다. 이는 시장경제 때문만이 아니라 중한수교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에서 크게 기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국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리상우 2007, 430).

중국내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족의 이동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조선족의 중국내 이동에 따른 조선족 사회의 도시화 비율은 중국 전체의 도시화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⁷⁾

7) 2002년 당시 중국 신화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도시화 비율의 추정치인 26.5%에 비해 조선족의 도시화 비율은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에 달했다. 리상우(2007, 437)를 참조.

〈표 1〉 조선족의 도시, 진(鎭), 농촌 인구 비율(%)

	1990년	2000년	2010년
도시 인구	34.64	45.86	54.58
진 인구	15.61	16.12	14.81
농촌 인구	49.80	38.02	30.61

* 중국 제4, 5, 6차 인구센서스 자료, 박광성(2014)을 참조 작성함.

〈표 1〉은 국내외 이동에 따른 조선족의 도시화 비율을 보여주는데, 조선족의 도시와 진(인구가 2만 명 이하 소도시)의 인구비율은 1990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19.19%가 증가했다. 즉 도시와 진의 인구 비율이 평균 매년 약 1%씩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호적과 임시거주증(暫住證)을 갖고 있는 인구수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호적을 원래의 거주지에 남겨두고 도시에 진출했으나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수를 감안하면 실제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즉 개혁·개방 이전 90%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한 것에서 30년 만에 농촌 거주자는 30% 정도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이진영 2006, 4; 리상우 2007, 437-438).

〈표 2〉 조선족인구의 지역분포(중국 제4, 5, 6차 인구센서스 자료)

		1990년		2000년		2010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동북지역	헤이룽장(黑龍江)성	454,091	23.61	888,458	20.19	327,906	17.90
	지린(吉林)성	1,183,567	61.54	1,145,688	59.55	1,040,167	56.81
	랴오닝(遼寧)성	230,719	12.00	241,051	12.53	239,537	13.08
내몽고	내몽고자치구	22,173	1.15	21,859	1.14	18,464	1.01
징진(京津)지역	베이징(北京)시	7,710	0.40	20,369	1.06	37,380	2.04
	톈진(天津)시	1,820	0.09	11,041	0.57	18,247	1.00
산둥(山東)반도	산둥성	3,362	0.17	27,795	1.44	61,556	3.36
창장(長江)삼각주 지역	상하이시	742	0.04	5,120	0.27	22,257	1.22

	장수(江蘇)성	963	0.05	5,048	0.26	9,525	0.52
주장(珠江) 삼각주 지역	광둥(廣東)성	611	0.03	10,463	0.54	17,615	0.96
	기타	17,603	0.91	46,949	2.44	38,375	2.10
전국		1,923,361	100	1,923,842	100	1,830,929	100

* 중국 제4, 5, 6차 인구센서스 자료, 박광성(2014)을 참조 작성함.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 총 인구에서 전통집거지인 동북3성의 조선족인구가 전국 조선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의 97.15%에서 2010년의 87.15%로 9.36%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신집거지인 징진지역, 산둥반도, 창장삼각주 지역, 주장삼각주 지역 등에서의 조선족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여년간 조선족인구의 지역분포 변화상황은 총체적으로 전통집거지의 감소와 신집거지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⁸⁾

한편, 개혁·개방정책과 중한수교 이후, 지리적 위치, 인건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특혜정책 실시 등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수의 한국기업이 대거 산둥성으로 진출했고, 조선족 역시 중한 양국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장점을 살려 한국기업에 대거 취직했다. 더불어 한국회사 근무자의 가족, 조선족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업의 산둥 진출 등에 따라 산둥성 거주 조선족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다.

〈표 3〉 2008년 산둥성 조선족인구 현황(단위: 명)(朴光星 2012, 60; 박광성 2014)

지역	호적인구	임시거주증	실제 거주인구
엔타이(煙台)시	4,020	6,000	4~5만
웨이하이(威海)시	6,866	8,857	3~4만
칭다오시	15,057	39,403	15만 여명

8) 물론 인구센서스는 조선족 인구의 총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주인구 통계가 실질적으로 호적 인구나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표 2〉와 〈표 3〉은 산둥성 및 산둥성의 주요 항구도시인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시 거주 조선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칭다오의 경우, 1992년 중한수교 이전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71개, 그 중에서 약 65개는 칭양(城陽)구⁹⁾에 자리 잡았다(위군 2011, 55). 중한수교 이후 2007년에 이르러 정상 영업 중인 한국기업이 4,081개로 칭다오에 투자한 외국기업 수의 50.6%를 차지했으며, 2010년 현재 실제 가동 중인 한국 투자기업은 3,319개로 파악됐다(장수현 2012, 341).¹⁰⁾ 조선족들이 한국기업에 취직하면서 한국기업에의 취직분이 일어났다.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기업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 인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전통집거지인 동북의 조선족들이 칭다오로 이주했다. 조선족들의 칭다오 이주는 ‘가족 단위 이주’의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남편은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고 부인은 공장 근처에서 매점이나 한식당을 운영했다.

현재 칭다오 지역 거주 조선족 인구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0만 명(흑룡강신문), 12만 명(대한민국 주청도 총영사관), 5만 여명(호적인구+임시거주증 소지자, 공안국 호적 담당자 통계) 등이다. 호적을 칭다오로 옮기지 않았거나 임시거주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칭다오시 공안국의 통계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흑룡강신문이나 대한민국 주청도 총영사관의 조사는 현지 각종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사라는 점에서 비교적 신뢰성이 있으며, 양자의 조사를 기초로 볼 때, 칭다오 지역 거주 조선족 인구(상주와 유동 인구를 포함)는 15~2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9) 칭다오시는 1994년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15개 부성급(副省級) 도시의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행정구역상 7개구(스난(市南)구, 스페이(市北)구, 스팡(四方)구, 리창(李滄)구, 라오산(嶗山)구, 칭양(城陽)구, 황다오(黃島)개발구)와 5개 현급(縣級)시(자오저우(膠州)시, 지머(即墨)시, 평두(平度)시, 자오난(膠南)시, 라이시(萊西)시)를 포함한다.

10) 그러나 1998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3년 ‘사스’에 따라 한국기업 시장의 사업철수 귀국이나 한국기업에서 독립하여 등극한 조선족기업들이 늘어났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 환율상승 부담으로 사업을 철수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칭다오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집거 형태는 ‘대분산, 소집거’(大分散, 小聚居, 즉 전체 구도 상으로 분산되었지만 일부 지역에 모여 사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족들이 한국기업이 비교적 많은 청양구, 라오산구, 황다오개발구, 지머시 등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또 유동성이 강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2. ‘민족교육’의 개념과 신집거지의 조선족 민족교육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와 달리, 중국에서는 ‘민족교육’(民族教育) 또는 ‘소수민족교육’(少数民族教育)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수민족교육’이라는 용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만들어졌으며, 이를 줄여 ‘민족교육’이라 부른다(안경식 2007, 48).

민족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민족교육의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교육’은 “과계문화(跨文化)교육(Trans-Cultural Education) 또는 공동문화를 가진 민족이 동일 민족 성원에 대하여 문화를 전승하고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교육’은 ‘소수민족교육’을 가리키며 이는 “다민족국가 중의 소수민족 구성원에 대해 실시하는 복합민족교육”, 즉 “다원(多元)민족교육”이다. 결국 주체민족인 한족 이외의 기타 민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이 중국에서의 소수민족교육이며 다문화교육인 것이다(滕星 1998, 23; 歐以克 2005, 2-3; 안경식 2007, 48). 중국에서의 민족교육은 중국의 국가와 종족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중요한 장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민족교육은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이른바 민족적 특색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선진문화라고 표현되는 보편적인 문화를 학습하고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인민의 소질을 개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이정은 2010, 154-155). 즉 중국의 민족교육은 민족보다는 국가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민족교육의 성공여부는 민족간 평등, 단결,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의 실

현,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민족교육’은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교육을 가리킨다. 이는 주체민족인 한족이외의 소수민족(여기서는 조선족)에 대해 실행하는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구성원 내부의 문화교류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민족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평등적, 우호적인 공존을 의미한다.

한반도 이외의 한민족 중 중국조선족만 민족문화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실행한 민족평등권과 민족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소수민족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민족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주체적인 노력은 변함이 없지만,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적 동기로 중국조선족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해외로 이주를 했다. 특히 (대)도시로의 이동으로 민족문화의 보존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집거지의 민족학교의 폐교와 더불어 신집거지에는 민족학교가 없어 민족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¹¹⁾

〈표 4〉 조선족 초등학교 및 학생 수 변화(국민일보 11/12/08, 48면)

	1991년	1996년	2002년	2004년	2010년
학교 수(개)	1,304	984	321	247	100미만(추정)
학생 수(명)	270,580	185,000	109,410	41,184	25,000(추정)

* 작성자: 재외동포재단, 중국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신집거지로의 이동은 조선족학교와 학생 수의 변화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4〉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이후 중국조선족 초등학교와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1) 이는 기타 소수민족, 종교를 구심력으로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한편, 전통집거지인 동북3성을 떠나 (대)도시, 연해도시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그들의 의무교육단계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문제를 고민했고 일련의 민족교육과 관련한 모색을 해왔다.

〈표 5〉 중국 연해도시 사립조선족학교 현황(박용욱(2008)을 참조 작성)

학교명	설립 지역	설립 년도	설립자	비고
새별조선족학교	톈진시 동리(東麗)구	1993년 8월	김정국	2005년 9월 폐교
장백조선족학교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1994년 8월	김정국	2003년 7월 폐교
삼강학원	중앙민족대 부속소학교	1999년 8월	황유복 등	2005년 8월 실험소학교로 이전
정양학교	칭다오시 리창(李滄)구, 청양(城陽)구	2000년 8월	김장웅, 최련옥	2009년 7월 교명을 벽산소학교에서 정양학교로 변경
서원장학교	칭다오시 지머(即墨)시	2006년 8월	김장웅	

〈표 5〉에서 보다시피 톈진지역 새별조선족학교는 중국 산하이관 이남 첫 정규 민족학교이다. 그러나 장백조선족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폐교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산하이관 이남 정규 조선족민족학교는 칭다오지역에 있는 정양학교 한 곳 뿐이다.

3.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¹³⁾ 실태

칭다오지역 거주 조선족 자녀들의 민족교육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것은 칭다오 진출 조선족 2세들의 교육적령기에 진입한 1990년대 말이

12) 초반 정양학교는 김장웅(교장)-최련옥(대표) 체제로 설립되었다. 이후 김장웅 씨가 정양학교를 떠나 서원장학교를 설립했고, 현재는 이순규(이사장)-최련옥(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 기업인 최련옥 씨는 사재를 털어 땅을 사서 교사(校舍)를 신축했고, 교사도 이창구에서 청양구로 옮겼다.

13) 칭다오지역의 민족교육은 전일제(全日制) 학교교육과 주말한글학교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말한글학교 교육을 받는 조선족 학생이 적고 또한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일제 학교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다(길림신문 09/10/15). 1997년 12월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의 설립을 필두로 칭다오 조선족사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고¹⁴⁾, 이는 칭다오의 조선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¹⁵⁾

〈표 6〉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 현황

	정양학교	서원장학교 ¹⁵⁾
설립년도	2000년 8월 ¹⁶⁾	2006년 8월
학교 성격	사립학교 (2001년 10월 칭다오시교육국의 정규학교 정식 인가 취득)	공립학교 내 사립학교 ① 정규학교 인가를 받지 못해 서원장실 협소학교(한족학교)에 편입, ② 학적 제외한 일체는 한족학교와 무관
교육과정	유치부, 소학부, 중학부, 고등부(계획 중), 국제부(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수	① 유치부(3개, 총400명) ② 소학부(총 650명) ▶1학년은 3개 반급 ▶2~3학년은 2개 반급 ▶4~6학년은 1개 반급 ③ 중학부 ▶1학년은 1개 반급	① 유치원(260명, 한족학생 100여 명 포 합) ② 초등학교(20~29명/반) ▶1~3학년은 2개 반급 ▶4~6학년은 1개 반급
교직원 수 및 민족 비율	① 68명(교사 52, 직원 16) ② 민족비율(55(한족) ¹⁷⁾ :45(조선족)	① 19명(전임교사), 5명(겸임교사, 음악, 태권도, 영어) ② 전임교사 중 7명이 한족교사
교직원 학력	사범대(전문대) 졸업 30~40%, 그 외 학부, 석사 졸업	사범대(전문대) 졸업
수업 언어	① 조선어/한국어, 사상품덕(사회), 음악, 미술 외의 모든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 ② 영어 수업(원어민 교사 2명, 한족 교사 (영어와 중국어 병용))	조선어/한국어, 영어, 음악, 체육 외의 모든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

14)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를 필두로, 칭다오조선족노인총협회, 칭다오조선족여성협회, 월드-옥타 칭다오지회, 칭다오항우연합회, 칭다오과학문화인협회, 칭다오조선족문인회, 칭다오조선족교사협회, 칭다오조선족대학생친목회 등이 설립되었다. 더불어 조선족 스포츠, 예술 동호회도 다수 만들어졌다(홍룡강신문 산둥지사 사장 P씨와의 인터뷰 2012/10/05).

15) 칭다오시 청양구과 지머시(칭다오시 관할 내 하급 시) 사이에 위치한 서원장촌에서는 2002년부터 촌에서 주거아파트를 대거 개발하여 판매,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인 지머시 호적에 등록되었다. 그 중 70% 좌우가 조선족이라고 한다. 서원장촌 거주 조선족들의 자녀들은 대개 서원장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재	① 조선어/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교재는 연변교육출판사 교재를 사용(한국 교재의 사용 검토 중) ② 중국어로 하는 수업 교재는 칭다오 공립학교 사용 교재와 동일함	① 조선어/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교재는 연변교육출판사 교재를 사용 ② 중국어로 하는 수업 교재는 칭다오 공립학교 사용 교재와 동일함
등록금	① 3,000~4,000위안/학기 ¹⁸⁾ ② 기숙사비 1,800위안/학기(통근버스 있음)	① 3,800위안/학기 ② 기숙사비 200위안(통근버스 있음)
운영비 등 자금 출처	① 등록금 ② 기업인 및 기타 사회 지원	① 등록금 ② 기업인 및 기타 사회 지원 ¹⁹⁾
校舎 임대료	건물 구입, 임대료 없음	25만 위안/년
교육이념과 민족, 특색 교육	① 다언어 ²⁰⁾ -다문화 교육 ② 정보화 교육 ③ 예·체능 교육(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1인1특기 특장교육) ④ 고유의 문화와 예의범절 교육	① 인성교육('10가지 상(賞) ²¹⁾) ② 다언어-다문화 교육 ③ 민족특색 교육-예의범절, 전통예술, 음식문화, 태권도

* <표 6>은 학교 관계자 인터뷰와 홍보책자를 기초로 작성함. 정양학교 관계자 L씨와의 인터뷰(2012년 11월 14일, 최초 인터뷰 이후 필요에 따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음), 서원장학교 관계자 J씨와의 인터뷰(2012년 10월 20일).

** 밑줄 그은 부분은 연구자가 강조한 것임.

<표 6>은 정양학교와 서원장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 신집거지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 현황이다. 이를 기초로 아래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해본다.

- 16) 최초 학교명은 '이창구(李滄區)조선족소학교', 2005년 9월 '칭다오벽산조선족소학교'로 개명, 2009년 7월 '칭다오정양학교'로 개명했다.
- 17) 이 중 행정직원이 20명 정도이다. 정양학교의 행정직원은 90%가 한족이다.
- 18) 서원장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내 사립학교 수급 평균은 12,000위안/학기, 그리고 교재비와 기타 잡비는 별도로 부담한다고 한다.
- 19) 인터뷰에 따르면 서원장학교의 재정상황은 장기적 적자라고 한다. 2008년의 경우 한해만 10만 위안의 적자가 생겼다고 한다.
- 20) 정양학교 서원장학교 모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삼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물론 전통집거지와 칭다오에서의 수업 용어 중 중국어와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전통집거지의 경우 한국어로 하는 수업의 비중이 중국어로 하는 수업의 비중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고, 칭다오에서의 수업은 중국어로 하는 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21) '10가지 상'은 효도상, 언어상, 정직상, 우정상, 근면상, 건강상, 특기상, 예절상, 학습상, 독서상 등이다.

(1)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사립학교가 공식적인 학력 교육기관으로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으나(양헌순 2011, 424), 사립학교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자금 투입과 지원은 미약하다. 특히 사립학교인 만큼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해야 하고, 또 관련부문에 2%의 설립기금을 상납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10/11/15).²²⁾ 학교 건물 임대비, 교직원의 월급 및 학교의 기타 운영비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기반이 아직 든든치 못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려면 너무 힘에 부치기에 아예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2006년부터 의무교육단계에서 학비면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여 교과서 값만 내게 되고, 2010년 12월 24일 중국 국가교육부가 공포한 「일부 규칙의 수정과 폐지에 관한 교육부의 결정」(《教育部關於修改和廢止部分規章的決定》)은 ‘소학교(초등학교) 관리 규정’ 중 제12조항인 “유관 규정에 따라 의탁수업비”를 삭제했다(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 10/12/24).²³⁾ 아울러 중국 국무원의 통보²⁴⁾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일부터 칭다오시는 부모를 따라 칭다오에 이주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무료의무교육을 전부 실시하게 되는데, 타지에 호적을 둔 조선족 학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 12/08/31). 이에 따라 조선족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의 경제적 부담이 더 두

22) 설령 조선족학교가 공교육기관일지라도,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생수에 따른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학생수가 적으면 풍족한 학교운영은 고사하고, 교사들의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3) 칭다오에 호적이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호적지를 벗어나 현지(칭다오)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의탁수업비(借讀費)나 입학찬조금(贊助金, 혹은 門檻費)이다. 의탁수업비의 경우 1만 위안/년, 입학찬조금은 일회성으로 2~3만 위안이다.

24) 국무원 통보의 명칭은 ‘타 도시 이주자 자녀들의 의무교육 접수와 현지에서 상급학교 진학시험을 치르게 할 데 관한 통보」(《國務院辦公廳轉發教育部等部門關於做好進城務工人員隨遷子女接受義務教育後在當地參加升學考試工作意見的通知》)이다.

드러지고 있다. 정양학교와 서원장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선족학생들은 통학생의 경우 연간 7~8천 위안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대학생의 1년 등록금에 못지않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칭다오에 공립학교 설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길림신문 12/12/24, 13/11/14). 또한 조선족기업가협회를 주축으로 칭다오 조선족 지성인들은 수년 전부터 조선족 공립학교 설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당국에도 수차례 청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절차문제와 다른 소수민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손을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연합뉴스 12/12/27). 중국에서 소수민족자치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해주는 사례이다.

(2)

교육이념은 단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만을 함축하지 않는데, 인간됨에 기여하는 핵심적 사상이고 교육의 기본 원리이며, 기본 정신이자 지도 원리이다. 특히 한 국가와 민족에게 교육이념은 교육을 총괄적으로 조망하여 매우 상징적으로 설정되며,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한다(신창호 2005, 35).

다언어-다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세계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양학교의 교육이념은 ‘바른 교육, 밝은 교육’이다. 정양학교에 대한 참여관찰 중 이러한 교육이념의 실천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학생 식당에 들어서니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맛있게, 즐겁게, 깨끗하게, 감사히 먹겠습니다”의 팻말이었고, 학생들 식사의 전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양 교육이념의 실천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서원장학교가 내세운 교육이념은 ‘인성교육’이다. 서원장학교 관계자 J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공립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이념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의 공립학교에서 주로 학업성적을 기초로 선정되는 이른바 ‘3호학생(三好學生, 세 가지는 품행, 공부, 신체건강을 의미하나, 학업성적을 주요

‘갓대로 함’은 이상적인 ‘학생상(像)’이다. 이와 달리 서원장학교의 ‘인성교육’은 ‘10가지 상(賞)’을 내세운다. ‘10가지 상’에는 순위가 있는데 효도상이 1순위, 공립학교에서 1순위에 있는 학습상과 도서상은 각각 9순위와 10순위로 설정했다. 10가지 상 중 7가지 이상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는 500위안/학기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장학금은 총 10명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장학제도는 2000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다.²⁵⁾ 이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풍토와 비교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육을 심사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또한 정양학교는 한국의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한국인 이사장, 중국 전통집거지 민족학교에서 장기간 교장으로 지낸 교장 선생님 등의 인맥을 동원해 한중 양국의 다수 대학교, 고등학교 등과 자매결연 하고 교육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정양학교는 중국내 민족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연변대학교 사범대학과 협약을 맺어 연변대학교의 기초교육전진(前進)기지와 교사교육실험기지로 되었으며, 연변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길림신문 10/08/16). 이어 2011년 정양학교는 한국의 전북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선족 동포들의 교육 활성화와 교류 협력에 나섰다. 엄선된 전북대생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정양학교에 머무르면서 중국의 학문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문학과 예술, 체육, 컴퓨터 등 분야의 교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연합뉴스 11/06/30). 이러한 교육 교류는 조선족 민족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 서원장학교 방향식 참여를 통해 상을 받아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 또한 서원장학교의 학부모인 연구자의 친구 J씨는 딸이 상을 받아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적이 있다.

(3)

전통집거지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과 마찬가지로 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주로 민족언어 교육과 민족문화 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민족언어 교육과 관련해, 조선족 민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수단으로 민족언어의 사용에 있고, 조선족은 민족언어를 지킴으로써 강력한 동화력을 지닌 한족문화 속에서 민족 정체성과 문화 및 전통을 유지, 보존해 왔다(최우길 2012, 86).

정양학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조선어, 사상품덕(사회), 음악, 미술 수업은 조선어/한국어로 진행하고, 그 외의 과목들은 중국어로 진행한다. 조선어/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3교시/일, 그리고 조선어(조선어문, 즉 한국의 '국어') 수업은 8교시/주이다.

한편,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漢族)과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조선어/한국어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최우길 2012, 87),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집거지는 물론 신집거지에서는 이중 또는 삼중 언어교육을 하는 것이 실정이다.

정양학교와 서원장학교 모두 기억력이 비상한 초등학교 시절에 이중 또는 삼중 언어 교육은 언어의 습득은 물론 두뇌의 개발에 유익하다는 점, 열린사회일수록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삼중 언어 교육을 특색교육 또는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부담을 줄 수 있고 더불어 두 언어 어느 하나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²⁶⁾ 즉, 조선족학교 학생들은 자기 민족어를 공부해야 하며, 주체민

26) 연구자의 주변에는 전통집거지에서 성장해 전통집거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조선족들이 수도룩하다. 가장 심각한 경우, 중국의 중점(명문)대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대학교 수업에서 중국어로 하는 교수의 수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필기를 못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다.

족인 한족과 경쟁하려면 중국어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에 발맞추려면 외국어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부담이 생겨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張建成 2000, 332-333).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중 또는 삼중 언어 교육이 별문제가 안 되지만, 중국 대학교의 진학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나 시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출세를 위해 아예 모어인 민족어를 포기하고 한족학교에 보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다음으로 민족언어와 함께 민족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민족문화 교육이다. 정양학교의 전통문화교육은 “대련시 조선족학교 내에서의 전통문화의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정보다는 특별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이정은 2010, 172)는 이정은의 연구에서 지적했던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양학교의 민족문화 교육은, 예의범절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든가, ‘우리말 경연대회’나 ‘우리말 합창대회’를 자주 연다거나, 교실 복도 게시판에는 한글로 민족의 풍습을 알리는 글들로 가득 차 있다든가, 개학식과 방학식 때 한복 입기, 조선족커뮤니티의 각종 오프라인 모임과 행사 때 민족무용 공연을 하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예·체능에서의 1인1특기 특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학부모 인터뷰 중 우연히 정양학교에 재학 중인 한족학생 학부모를 만났는데, 정양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예의가 바르고, 예의범절 교육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양학교 학부모 Z씨와의 인터뷰 2013/ 09/17).

한편, 이정은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민족교육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같은 조선민족/한민족과의 교류는 종족정체성,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이정은 2010, 173-174). ‘조선족학교’의 존재 자체와 그 공간에서의 공동체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온 교생선생들과의 수업과 생활, 칭다오 현지 조선족 커뮤니티 특히 칭다오조선족대학생연합회²⁷⁾와의 만남은 민족의

27) 칭다오지역 대학교 학생들로 자발 조직된 ‘칭다오조선족대학생연합회’가 있다. 동 연합회는

식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족학교 수학(修學)시 있을 수 있는 소수민족 학생 “왕따”, 차별, 모욕감 등 현상이 없기에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등 특별한 교육효과를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 정양학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하는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시름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정양학교의 일상에 대한 참여관찰 중에서 학교 지도자들이 한 학기 한 번씩 학부모들과 1:1 면담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4)

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저렴한 비용, 최상의 교육시설과 콘텐츠, 그리고 최강의 교사진이다. 그만큼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표 6〉에서 보다시피 정양학교의 교직원 학력 중 30~40%는 사범대(전문대) 출신이다. 정양학교는 교사의 학력 평균수준을 제고, 즉 학부이상 졸업 100%, 거기에 석사, 박사 졸업자 우선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인 만큼 교사진의 유동성이 강하다. 교사진의 유동성이 강한 이유는 주로 교사의 편제(編制), 칭다오 호적과 그에 따른 복지, 기타 복지 등에서 공립학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수준 높은 민족교사의 영입, 비교적 높은 학력을 소유한 교사를 영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한편, 중국 소수민족교육의 기본골격을 되는 ‘개혁을 심화시켜 민족교육

중국해양대, 칭다오대, 칭다오과기대, 칭다오농업대, 산둥과기대, 칭다오이공대 약 2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운동회와 송년회를 가지며 기업협회, 여성협회 행사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신입생환영회, 졸업생환송회, 그리고 MT를 조직한다. 연합회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은 친목을 벗어나 현지 조선족사회에 대한 재능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고 한다. 한 가지 실천으로 연합회는 조선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족 언어, 문화 및 역사 과외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28) 현지조사 중 정양학교는 최근 퇴직교사에 대해 매달 연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다.

의 발전을 가속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教育的決定》)은 교사대오의 건설을 민족교육 발전의 중점사항으로 설정했다. 이 결정은 이중언어 교사의 양성, 교사 연수 시설의 건설, 학교장 육성의 강화, 원격교육 등 현대화 교육수단의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新華網 02/08/19). 물론 결정의 적용범위는 소수민족자치구역일 것이고, 또한 공립 학교 교사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정양학교와 같은 조선족 사립학교는 상술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양학교는 교사 재교육, 업무훈련 등은 중국과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5)

상술하다시피 칭다오에 살고 있는 조선족인구가 15~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를 기초로 학령기 조선족학생들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면, 이 숫자와 정양학교 및 서원장학교의 숫자를 비교해 볼 경우, 거의 대다수 학생은 한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볼 때, 학부모들의 조선족학교 선택을 결정짓는 동기는 대체로 아래의 네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종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이다. 대개 민족교육에 대한 소신이 집안 내력인 경우인데, “우리 말을 배우라고 돈을 팔면서 손자를 사립조선족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나 사립조선족학교에 초중부, 고중부가 없다보니 조선족학교에서 연이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생각 끝에 소학교를 졸업하기전에 손자를 한족소학교에 전학시켰다”(길림신문 12/12/24)는 어느 할머니의 말씀처럼, ‘한족아이’가 아닌 ‘조선아이’라는 종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양학교를 보낸다. 물론 현재처럼 중학부가 있었다면 한족학교에 전학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례]학부모 X씨(30대, 남, 자영업, 칭다오에 8년 거주)

“한족학교를 다니면서 조선어 대신 우리와 한어(중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조선족에 비하면 한족들은 말 자체가 존댓말이 적어 그런 걸 배울까봐 걱정이고 ‘한족아이’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됐다. 주변 친구 중에 자식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친구가 있어, 친구와 물어보니 한족말에 익숙하지만 우리(부모)가 좀만 노력하니 조선말도 쓰려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 조선어 수업도 있고, 예절이나 문화교육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집에서 지 엄마랑 조선말로 글쓰기도 하다 보니 ‘한족아이’라는 말까지 들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애한테 혼란이 올까봐 걱정했지만 그길로 애를 조선족학교에 전학시켰다. 조선말도 배우고 조선족 친구들도 많아지면서 조금씩 조선말도 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다.”(인터뷰 일자 2013/08/25)

X씨처럼 조선족은 당연히 조선어를 사용해야 하고, 또한 한족들의 언어나 생활습관을 못마땅하게 여겨(“싸가지 없다”거나 “더럽다”, “미개하다” 등 한족에 대한 고유한 편견을 가진) 조선족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물론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롭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조선족학교라지만 전통집거지의 조선족학교와는 달리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 한어/중국어(중국어)를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변출신으로 중국내 모중점대학 졸업생인 학부모 C씨(40대, 전문경영자, 칭다오에 20년 거주)는 “대학교 때 안쪽(특히 헤이룽강과 랴오닝성 조선족)에서 온 조선족 동창들 보니 한족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 우리 애들이 어찌 보면 개네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다. 여기서 조선족학교를 다니면 한족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 좋다. 조선말이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우리 부모들도 노력하면 되지”라고 했다(학부모 C씨와의 인터뷰 2013/08/30).

둘째, 양자간 비례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종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보다는 종족정체성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훨씬 많다. 이정은(2010)의 ‘실리’는 ‘대학 입시에서의 가산점’과 ‘한국과의 교류 증가에 따른 실리적 측면’이다.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볼 때, ‘대학 입시에서의 가산점’은 정양학교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학부모 P씨, C씨, Q씨와의 인터뷰 2013/08/30). 우선, 그들에 따르면 “대학입시는 조금은 먼 장래의 일”이다. 또한 2012년 말 산둥성은 중국내에서 제일 먼저 2014년부터 ‘격지 대학입시’(異地高考)²⁹⁾를 실행한다고 공포했으나, “산둥성의 입시생이 다른 성에 비해 많아 입시 성적 평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성에 일정한 대학교 합격자 정원을 배분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靑島財經日報 12/12/15). 오히려 학부모들은 중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것이 장래 자녀들의 성공의 자원이 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선택했다고 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실리’는 ‘한국과의 교류 증가에 따른 실리적 측면’이다. 특히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쓸모 있는 언어’로 되어 가는 추세이며(리상우 2007, 451-452), 칭다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한글 간판과 한국문화의 ‘낙인’들은 자신들에게 더욱더 ‘한국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의 문화를 ‘관계’(關係) 문화로 개념화 할 정도로, 중국사회에서의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 형성을 떠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본이 된다. 특히 주체민족인 한족들과의 인맥은 주류사회에서의 소수민족(조선족) 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족들과의 인맥 형성을 중요시하는 다수 조선족 학부모들과는 달리, 조선족들간 인맥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도 있다.³⁰⁾ 그들에 따르면 “정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29) 중국은 호구제(戶口制)를 실행함에 따라 학교 교육은 현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지만, 대학 입시는 호적 소재지에서 치러야 한다. ‘격지 대학입시’는 호적 소재지가 아닌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현거주지에서 대학입시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30) 한족과의 인맥이 없으면 정치나 사업에서의 성공은 논하지 말라는 농담처럼, 조선족들 중에는 한족 인맥 중시자 또는 ‘주류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은 당연히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자녀가 ‘한족아이’가 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한족학교를 선호하는 아이러니

중에는 부모가 장사를 하는(자영업이나 기업가)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우리도 장사를 하는 처지라 애들간 인맥 형성, 그리고 애들을 통한 부모들간 인맥 형성은 현재를 보나 장래를 보나 한족들과의 인맥 형성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족들과의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같은 학교나 같은 반을 다닌다고 해서 인맥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맥 형성의 환경을 제공해 줄 뿐이다.”(학부모 A씨, J씨와의 인터뷰 2013/11/13) 특히 학부모 J씨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 윈윈(Win-Win) 효과를 봤다고 했다.

또한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양부모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정양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상대적으로 시름 놓고 보낼 수 있는 엄격한 기숙사제도와 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책임감을 들었다. “공립학교에 가면 우리 애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언제 교장이나 교무주임 얼굴을 보겠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매일 이다시피 담임선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날아와 이것저것 시키는데 애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과외선생을 청해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학부모 F씨와의 인터뷰 2013/09/12).

셋째, 학교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학비 문제이며, 경제력은 학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명히 개인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장수현 2013, 191). <표 6>에서 보다시피 칭다오의 조선족학교는 사립학교로, 공립학교와 비교해 볼 때 통학생의 경우라 할지라도 연간 7~8천 위안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칭다오에선 돈이 있어야 민족교육을 시킬 수 있다”(한겨레 11/11/20, 8면).

구지영의 연구에 따르면, 칭다오 조선족사회의 계층분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는데, 4대 계층으로 기업가(사영기업가

를 보여준다. 즉 ‘주류 콤플렉스’는 조선족학교 대신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및 전문경영자), 서비스 자영업자(개체공상호), 전문직 종사자(전문기술자 및 사무원), 단순육체노동자(실업·반실업자 포함)으로 분류했다(구지영 2013, 314, 322).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정양학교의 학부모들은 4대 계층 중 앞의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양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2/11/17).

넷째, 교육이념과 방식, 교육콘텐츠 때문에 선택한 경우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긍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갖추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전통집거지인 연변에서 민족교육 쇠락의 해결사로 회자되는 ‘소인수 학급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소인수 학급교육은 일종의 ‘열린교육’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이하로 편성되는 것, 교장실·교무실 없애고 교무행정을 철저히 민주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 서로 돕고, 서로 배우는, 토론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수업시간을 40분으로 줄이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최우길 2012, 89). 소인수 학급교육은 연신소학교가 한국의 교육계와의 잦은 교류, ‘열린 교육’ 등 선진교육방식에 대한 학습 및 실천을 통한 혁신의 결과이며, 연구자는 특히 서로 돕고, 서로 배우는, 토론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바른 교육, 밝은 교육’을 이념으로 한 정양학교의 교육과 실천은 소인수 학급교육처럼 검증된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하에 정양학교가 실시하는 삼중 언어 교육, 민족문화 교육 등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양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 그럼에도 정양학교의 교육이념과 방식, 교육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선택한 학부모 J2씨(40대, 여, 자영업, 한국유학 경험이 있음)는 “입소문이나 현지 조선족언론을 통해 정양학교와 한국 교육과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학교 이사장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학교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애를 한국에 유학 보낼 생각인데 정양학교가 최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국계 국제학교도 생각해봤

다. 하지만 그런 학교들은 정규 학교보다는 학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한 한국계 국제학교들에 비해 중국문화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학부모 J2씨와의 인터뷰 2013/09/19).

한편 B씨(30대, 여, 주부)는 “굳이 아이를 중국대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고, 한국의 대학교에 보낼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시킬 것이다.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싶는데 삼중 언어, 중국·한국·조선족 나름의 문화와 교육방법을 경험하는데 정양학교는 최적인 것 같다”고 했다(학부모 B씨와의 인터뷰 2013/11/13).

이밖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한족학교를 다닐 때 ‘왕따’로 몰린 적이 있는데, 정양학교에 전학을 온 이후 많이 밝아져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 당초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

요컨대, 중국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이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구성원 내부의 문화교류를 주요목적으로 하며, 민족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평등적, 우호적인 공존을 의미한다고 볼 때, 신집거지-칭다오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민족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수적으로 극히 적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다. 그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민족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는 민족학교 관계자, 이들과 적극 힘을 모으는 조선족기업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지성인들이 있어 희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인터뷰에 통해, 민족교육에 비교적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면서 나름 합리적 판단으로 민족학교를 선택한 학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은 칭다오 조선족 민족교육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IV. 조선족의 신·구 집거지 민족교육 내용 비교

본 장에서는 신집거지-칭다오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조선족 전통집거지 학교의 민족교육 내용과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 분석은 칭다오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에서 다루었던 민족교육 자본, 교육콘텐츠, 교육의 질과 효율성 및 교육모델(교육이념)의 정립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1. 민족교육 자본

전통집거지 조선족 학교의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경비부족의 문제이다(최우길 2012, 88). 이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86년 실시된 중국의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들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졌고, 1993년에는 더 나아가 학교 재정 수입의 다각화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양한순 2011, 423-424; 장수현 2013, 179). 교육시장을 둘러싼 경쟁의 가열화 상황에 직면해 학교들은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결과는 학교간의 빈부격차만 점점 심해지는 결과만 초래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학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구축되었다(최우길 2012, 88). 조선족의 대규모 국내외 이동으로 전통집거지 민족학교는 적령기 조선족 학생들을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학교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통폐합이란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민족간부의 유출(하해(下海)³¹⁾)이나 감소로 인해 특히 교육행정에서 예산집행권을 가진 분야의 조선족 책임자 비율이 한족

31) '바다로 흘러간다'는 본 의미가 있으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행 이후, 정부기관의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른바 '철밥통(鐵飯碗, 수입과 직위가 보장된 직업)'을 버리고 위험부담이 큰 외국기업이나 합작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등 현상을 의미하는 중국어의 신조어다.

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조선족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최우길 2012, 88).

신집거지-칭다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욱이 정양학교는 사립학교이고,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학교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민족교육에 투입될 자본과 관련해, 특히 신집거지-칭다오의 조선족 지성인들이 협력하여 지방정부에 ‘소수민족 전용기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민족전용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정은 2010, 159)고 하지만, 중국정부가 “사실에 기초한(根據實情, According to the Truth)” 것과 “사례별로 처리하는”(具體問題具體分析, Case by Case) 것을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신집거지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 중한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있어서 칭다오와 조선족의 교량 역할 등을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유치, 기부의 장려, 민족교육기금회(이사회)의 설립 등도 고민해야 한다. 2012년 6월 중국교육부는 「민간자본의 교육분야 진출을 고무, 인도해 민영교육의 건강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실시의견(關於鼓勵和引導民間資金進入教育領域促進民辦教育健康發展的實施意見)」을 발표했다(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門戶網站 12/06/28). 이를 계기로 칭다오 조선족 민족학교(사립 및 공립학교) 설립에 주축이 되었던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를 활용해 조선족 기업인들로부터 투자 및 지원을 획득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³²⁾

32) 한국기업 사장의 귀국이나 한국기업에서 독립해 등록된 조선족 기업이 1,000여개에 달한다. 초창기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조선족 기업의 위상이 한중수교 20년이 된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청도한국인회 최영선 수석부회장은 “전에는 조선족 기업이 한국기업에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은 거의 독자적이다. 이제는 한국기업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왔으며 윈-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칭다오 조선족기업 수는 1천 여 개, 그 가운데서 2011년 기준으로 매출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 설립의 취지가 외국인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종학당재단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그에 비해 같은 민족인 조선족들의 모국어 및 모국 역사에 대한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다. 또한 재외동포교육의 지원부서가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한다면 동 재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는 중국정부에게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에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2. 교육콘텐츠

민족교육의 교육콘텐츠, 주로 민족언어 교육과 민족문화 교육, 그리고 비공식적 민족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전통집거지에서의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교육은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다. 특히 연변지역의 경우, '자치주 조선족 중소학교에서 조선족 민족문화 교육을 전개할 데 대한 연변주 교육국의 지도의견'(*延邊州教育局關於在全州朝鮮族中小學開展朝鮮族民族文化教育的指導意見*)에 따라, 현재 조선족 민족문화 교육³³⁾은 연변주 중소학교의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주에 한 시간씩 매학기 8시간이 배정되어 있다(延邊教育信息資源網 07/10/10; 최우길 2012, 92).

이 1억달러 되는 기업이 1개, 1,0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이 20여개, 5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이 50개 된다고 한다(연변통보 12/05/05). 상술하다시피 정양학교는 조선족 기업인 최련옥 씨가 사재(인민폐 1억 위안)를 털어 교사를 지은 것인 만큼, 더 많은 조선족 기업인들의 투자와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초등학교의 민족문화 교육은 조선족 전통미덕교육과 민족풍정 소개를 기본으로 민족 언어문자의 정감교육, 기본예의, 의식주행, 민족예술, 민족체육 등 방면에서 체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 1~2학년의 민족문화 교육은 조선족 역사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애국주의 교육과 민족의식교육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지리문화, 민속풍정, 예의문화, 음악체육미술 등 방면에서 비교적 체계화된 감상과 실천성 교육을 하고 있다(延邊教育信息資源網 2007/10/10; 최우길 2012, 91-92).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정규과정에 포함시킨 반면, 연변지역에서 이중·삼중 언어 교육의 실시로 조선어 교육 시수는 줄어들었다. 2003년에 이루어진 연변 조선족학교 제4차 교과과정 개혁과 2004년 지린성 조선족 의무교육 교과과정 계획에 따라 언어 교육의 시수는 조정되었는데, 조정 후의 비율은 14.6%(조선어), 16.3%(한어), 7.9%(영어)이다(俞永虎 2006, 4).³⁴⁾

이는 대련의 경우 6-8(조선어):6-7(중국어)(이정은 2010, 171-172)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각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연변지역의 초등학교가 1주내 조선어로 하는 수업이 5교시, 반면 정양학교의 3교시/일, 더불어 조선어 수업이 8교시/주라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연변지역에서는 조선족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을 높이는데, 반대로 정양학교는 조선족학생들의 조선어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아이러니다.

그렇다고 정양학교 학생이 연변의 조선족학교 학생들에 비해 민족언어나 민족문화에 대한 장악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민족교육의 hidden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 또는 비공식적인 민족교육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王淵博 외 2013, 44). 학교교육은 교육의 일부일 뿐이고,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도 민족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종족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된다. 이정은(2010)에서 지적된 ‘조선족 공동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공간 속에서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조선민족’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연변지역과 같이 조선족 인구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정양학교의 학생들은 가정은 물론 온·오프라인 한인 커뮤니티, 한류(한국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칭다오조선족대학생연합회나 코리아타운, 한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종족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4) 물론 이는 언어 과목의 비율이다. 1주 수업시간표를 통해 볼 때, 조선어로 하는 진행하는 수업과 한어/중국어로 하는 수업의 비율은 5:5(초등학교), 2:6(중학교), 3:5(고등학교)이다(黃勝天 2011, 192). 영어 수업은 중국어를 병용하기에 중국어로 하는 수업 시수에 포함시켰다.

3. 교육의 질과 효율성 및 교육모델(교육이념)의 정립

연길시연신소학교의 ‘소인수 학급모델’은 매달 연변조선족자치주 전역의 교사들이 연신소학교에 모여 모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수업을 참관할 정도라고 한다(최우길 2012, 89). 즉 소인수 학급모델은 이제 전통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통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의 문제점들인 민족학교의 통폐합, 학생 수의 감소, 가정교육의 붕괴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전통집거지의 경우, 인구가 유출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선족 학생만을 상대로 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뿐 더러 학교의 시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은 한족 학생을 모집해 ‘한족반’(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시)을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들은 현지에 체류하거나 중국으로 조기유학을 오는 한국 학생을 모집해 ‘국제부’의 운영(선양(沈陽)과 하얼빈(哈爾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족반’의 운영은 위에서 문제시 되었던 ‘판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한족 내에서도 조선족과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이른바 ‘친한(親韓)’파를 육성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³⁵⁾ 또한 ‘한족반’과 ‘국제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통집거지 조선족학교의 대응과 더불어, 앞으로의 고중부 설치와 관련해, 국내대학 진학반·한국대학 진학반·미국대학 진학반을 각각 운영하는 하얼빈(哈爾濱)의 ‘만방(萬邦) 학교’ 모델이 시사점을 주고 있다.³⁶⁾

35)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연변지역의 경우, 일부 한족간부 자녀들이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향후 조선족 거주 지역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P처장과의 인터뷰 2012/02/20).

36) 만방학교는 정양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이고, 수차례 헤이룽장성 우수 사립학교로 선정되는 등

민족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교육의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글로벌화·정보화·지식화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볼 때, 협소한 민족교육의 틀을 벗어나 주류사회의 다원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인재양성에 훨씬 유리한 것이며, 민족전통에 대한 교육도 다문화시대의 합격된 인재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박광성 2011, 82).

따라서, 칭다오지역(또는 신집거지) 현지의 실정에 적합한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고 한족학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의 질과 교육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교육의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조선족 학생들은 물론 한족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³⁷⁾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학교 지도자와 학부모의 1대 1 면담과 학교 식당의 팻말은 연구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런 면담이 학생 수가 많은 한족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은 전통미덕이나 예절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현 중국정부의 공식입장과도 일치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사가 유동적이라 학생들에게 소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이 학부모들 속에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중진교사들의 적극적 영입과 복지개선, 그리고 전도유망한 교사들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소인수 학급모델이나 만방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정양학교는 정양모델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적은 학생 수, 중국에서 실행하는 9년제 의무교육과정까지 이수한 정양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 정양학교에 대해 현지 조선족들의 낮은 인식도(조선족학교라는 것 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양학교가 향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13년 재외한인학회 세미나에서 동 모델이 제기된 후, 정양학교 이사장은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과 토의를 했다.

37) 인터뷰에 따르면 정양학교와 서원장학교에 10명의 한족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한족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예의범절이나 1인1특기의 특장교육 때문에 조선족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학교에 대한 기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등이 그 이유다.³⁸⁾

정양학교의 홍보와 관련해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한다면, 칭다오 지성인 협회와 단체의 활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관찰 중 알게 된 사실은 정양학교가 기업인협회, 여성협회, 과학문화인협회 등 칭다오조선족 지성인 협회의 회의 시 장소를 빌려준다. 회의장소를 빌려주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지성인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들의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협회의 회원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신집거지-칭다오에서의 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중국 칭다오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학부모들의 민족학교 선택과의 상관성을 분석했으며, 이를 기초로 신·구 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의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이 논문이 신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을 주제로 한 것은, 조선족 사회 위기론의 대두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조선족 민족특색 교육의 위기설이었다는 점(이정은 2010, 159)도 중요하지만, 전통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 연구에 보이는 ‘과도한 관심’과 달리 신집거지 민족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거의 공백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8) 연구자 역시 참여관찰을 통해 정양학교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조선족 전통집거지의 해체가 기존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면, 신집거지의 구축은 신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조선족 전통집거지에서 민족교육은 민족 언어의 사용과 보존,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민족정체서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신집거지의 민족교육은 신질서의 구축에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집거지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 특히 조선족 신·구 집거지에서의 민족교육 내용 비교에서 도출된 결론들이 바로 그러하다. 우선, 민족교육 자본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자본(주로 조선족 기업인들의 투자)의 유치, 한국 정부 관련 부서의 지원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민족교육의 콘텐츠와 관련해 공식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는 비공식적인 민족교육 또는 히든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집거지 민족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의 성과물인 ‘소인수 학급모델’처럼 신집거지의 민족교육 관계자들은 ‘정양모델’의 구축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정양학교는 아직까지 교육의 질과 효율성 등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함’이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 논문의 연구의의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가 세 가지 차원의 비교연구, 즉 전통집거지와 신집거지 간의 비교연구, 중국내 조선족의 신집거지들 간의 비교연구, 대표적인 해외 한인 거주지역과의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전통집거지와 일부 비교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연구의 심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비교적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대련시 조선족학교와의 비교를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이 논문의 한계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연구의 심도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함의를 도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표본이 적고, 또한 통계학적 연구에 필요한 직업, 계층, 소득, 학력수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후속연구들

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구지영(Koo, Ji-young). 2013. “지구화시대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에 관한 소고: 중국 청도(靑島)를 중심으로.”(Jigu-hwa Sidae Chosunjok-ui Idong-gwa Jeongju-e Gwanhan Sogo: Jungguk Qingdao-reul Jungsim-euro) 『인문연구』(Inmon Yeongu) 68: 297-330.
- 리상우(Li, Xiang-yu). 2007. “개혁기 중국조선족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구심력과 원심력을 중심으로.”(Gaehyeokgi Jungguk Chosunjok Sahoe-ui Jeongcheseong-e Daehan Gochal: Gusim-lyeok-gwa Wonsim-lyeok-eul Jungsim-euro) 『동아연구』(Donga Yeongu) 53: 425-460.
- 박광성(Piao, Guangxing). 2011. “세계화 시대 조선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키워드들.”(Seogyehwa Sidae Chosunjok-eul Ihae halsu Issneun Haksim-jeok Keyworddeul) 『미드리』(MIDRI) 6: 72-83.
- _____. 2014.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 교육.”(‘Globalization’-wa ‘Dae Dosi-Hwa’ Gwajong Sok-eseoui Jungguk Chosunjok Minjok Kyoyuk)
<http://yanbianews.com/bbs/view.php?id=news06&no=1866>(검색일: 2014.03.05).
- 박금해(Piao, Jinhai). 2012. 『중국 조선족 교육의 역사와 현실』(Jungguk Chosunjok Kyoyuk-ui Yeoksa-wa Hyeonsil). 서울(Seoul): 경인문화사(Gyeongjin Munhwasa).
- 박용옥(Piao, Longyu). 2008. “연해도시 조선족사립학교에 대한 고찰.”(Yeonhae Dosi Chosunjok Salip hakgyeo-e Daehan Gochal)
http://korean3040.com/bbs/board.php?bo_table=0601&wr_id=9183(검색일: 2013.10.10).
- 방인혁(Bang, In-hyuk). 2008. “구조와 행위자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 이론들의 합의 연구: 구조-제도·사상-행위자 삼분론의 정립을 위하여.”(Guzo-wa Haengwijja

- Gwangye-e Daehan Sin-Jedojui iron-deului Hami Yeongu: Guzo-Jedo · Sasang-Haengwija Sambunron-ui Junglim-eul Wihayeo) 『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Studies) 16(2):104-135.
- 신창호(Shin, Chang-ho). 2005. 『교육학 개설』(Kyoyukhag Gaeseol). 서울(Seoul): 서현사 (Seohyeonsa).
- 안경식(An, Gyeong-sik). 2007. “중국 소수민족교육의 과거와 현재-다문화교육의 관점에 서-.”(Jungguk Sosu Minjok Kyoyuk-ui Gwageo-wa Hyunjae) 『교육사상연구』(Kyoyuk Sasang Yeongu) 21(2): 47-72.
- 양한순(Yang, Han-sun). 2011. “중국 교육의 시장화와 사립학교의 성장.”(Jungguk Kyoyuk-ui Sijang-hwa-wa Salip Hakgyeou-ui Seongjang) 『동북아문화 연구』(Dongbuka Munhwa Yeongu) 26: 419-443.
- 예성호(Rui, Shenghao) · 김윤태(Kim, Yun-tae). 2014. “‘초국가주의 역동성’으로 본 재중 한국인 자녀교육 선택에 대한 연구: 상해지역을 중심으로-.”(‘Chogukga Jui Yeokdong-seong’euro Bon Jaejung Hangukin Janyeo Kyoyuk Seontaek-e Daehan Yeongu: Shanghai Giyeok-eul Jungsim-euro) 『중국학연구』(Junggukhak Yeongu) 68: 337-363.
- 위 군(Wei, Qun). 2011. “청도 코리아타운에 관한 연구.”(Qingdao Korean Town-e Gwanhan Yeongu) 『글로벌문화콘텐츠』(Global Munhwa Contents) 7: 47-76.
- 이정은(Lee, Jeong-eun). 2010.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 대련시 조선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Gukga-wa jongjok-ui Sangho Jakyoungeul Tonghae Bon Chosunjok-ui jongjok Jeongcheseong: Dalianshi Chosunjok Hakgyeou-ui Salye-reul Jungsim-euro) 『비교문화연구』(Bigyeo Munhwa Yeongu) 16(2): 151-193.
- 이진영(Lee, Jean-young). 2006. “중국 5대 경제권역의 새로운 재중동포 권역 형성 및 시각.”(Jungguk 5Dae Gyengje Gwonyeok-ui Saeroun Jaejung Dongpo Gwonyeok Hyeongseong mit Sigak) 내부세미나 발표문(Naebu Seminar Balpyo-mun).
- 장수현(Jang, Soo-hyun). 2012. “중국 청도 한국인 교민사회에 대한 연구: 지구화 시대 초국

- 적 이주의 구조적 유동성.”(Jungguk Qingdao Hangukin Kyomin Sahoe-e Daehan Yeongu: Jigu-hwa Sidae Choguk-jeok Iju-ei Guzo-jeok Yudongseong) 『중국학 연구』(Junggukhak Yeongu) 67: 337-360.
- _____. 2013. “중국 청도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교육환경: 교육의 시장화와 다양성의 딜레마.”(Jungguk Qingdao Hanguk Jogi Yuhaksaeng Deul-ui Kyoyuk Hwangyeong: Kyoyuk-ui Sijang-hwa-wa Dayangseong-ui Dilemma) 『열린교육연구』(Yeollin Kyoyuk Yeongu) 21(1): 179-202.
- 최우길(Choi, Woo-gill). 2012. “중국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중심으로.”(Jungguk Chosunjok Kyoyuk-ei Hyunhwang-gwa Gwaje) 『디아스포라연구』(Diaspora Yeongu) 6(1): 83-102.
- 카슬 스티븐 (Castles, Stephen) 외(Oe). 2013. 『이주의 시대』(Iju-ui Sidae). 서울(Seoul): 일조각(Ilchokak).
- 黃勝天(Huang, Shengtian). 2011. “延邊朝鮮族雙語教育現狀及分析.”(Yanbian Chaoxianzu Shuangyu Jiaoyu Xianzhuang ji Fenxi) 『教育教學論壇』(Jiaoyu Jiaoxue Luntan) 5: 191-192.
- 歐以克(Ou, Yike). 2005. 『民族高等教育學』(Minzu Gaodeng Jiaoyuxue). 北京(Beijing): 民族出版社 (Minzu Chubanshe).
- 朴光星(Piao, Guangxing). 2012. “少數民族流入人口的權益訴求與城市民族工作-基於對青島市朝鮮族流入群體的實地調查.”(Shaoshu Minzu Liuru Renkou de Quanyi Suqiu Yu Chengshi Minzu Gongzuo-Jiyu Dui Qingdaoshi Chaoxianzu Liuru Qunti de Shidi Diaocha) 『黑龍江民族叢刊』(Heilongjiang Minzu Congkan) 2: 59-66.
- 滕星(Teng, Xing). 1998. “民族教育概念新析.”(Minzu Jiaoyu Gainian Bianxi) 『民族研究』(Minzu Yanjiu) 2: 23-30.
- 王淵博(Wang, Yuanbo) · 蘇德(Su, De). 2013. “延邊朝鮮族自治州朝-漢雙語教育的成功經驗及困境探討.”(Yanbian Chaoxianzu Zizhizhou Chao-Han Shuangyu Jiaoyu de Chenggong Jingyan ji Kunjing) 『民族教育研究』(Minzu Jiaoyu Yanjiu) 3: 42-46.
- 俞永虎(Yu, Yonghu). 2006. 『延邊朝鮮族中小學雙語教育改革中存在的問題及解決對策』

- (Yanbian Chaoxianzu Zhongxiaoxue Shuangyu Jiaoyu Gaige zhong de Wenti ji Jiejue Duice). 長春(Changchun):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Dongbei Shifan Daxue Shuoshi Lunwen).
- 張建成(Zhang, Jiancheng)主編(Zhubian). 2000. 『多元文化教育』(Duoyuan Wenhua Jiaoyu). 台北 (Taipei): 師大書苑(Shida Shuyuan).
- 鄭信哲(Zheng, Xinzhe) · 黃娜(Huang, Na). 2010. “少數民族人口流動與城市民族教育問題探討-以山東省青島市朝鮮族教育實踐爲例.” (Shaoshu Minzu Renkou Liudong Yu Chengshi Minzu Jiaoyu Wenti Tantaoyi Shandongsheng Qingdaoshi Chaoxianzu Jiaoyu Shijian Weili 『中南民族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Zhongnan Minzu Daxue Xuebao(Renwen Shehui Kexue Ban) 30(1):30-34.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ndt, Alexander E.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Summer): 335-370.

2. 신문과 인터넷 기사

- 국민일보(Kukmin Ilbo). 2011. “‘한국어 학교’ 없으면 조선족 언어·문화도 위기.”(‘Hangukeo Hakgyeo’ Eobeumyeon Chosunjok Eoneo · Munhwa-do Wigi) 『국민일보』 (Kukmin Ilbo)(12월 8일).
- 연합뉴스(Yonhap News). 2011. “전북대생들, 중국 조선족 학생 가르친다.”(Jeonbukdae saeng-deu, Jungguk Chosunjok Haksaeung Galeuchinda) 『연합뉴스』 (Yonhap News)(6월 30일).
- 연합뉴스(Yonhap News). 2012. “칭다오 조선족사회 ‘조선족공립학교 설립 고대’.” (Qingdao Chosunjok Sahoe ‘Chosunjok Gonglip Hakgyeo Seollip Godae’) 『연합뉴스』 (Yonhap News)(12월 27일).
- 한겨레(Hankyoreh). 2011. “조선족학교 2곳뿐…자녀 보내려는 사람도 많지 않아.” (Chosunjok Hakgyeo 2Got ppun…Janyeo Bonaelyeoneun Saram-do Manchi

ana 『한겨레』(Hankyoreh)(11월 20일).

길림신문(Jilin Xinwen). 2009. “청도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Qingdao Chosunjok Kyoyuk-ui Hyeonhwang-gwa Baljeon Jeonmang) 『길림신문』(Jilin Xinwen)(10월 15일)
http://www.jlxcwb.com.cn/cxz/content/2009-10/15/content_31950.htm(검색일: 2013.12.20).

길림신문(Jilin Xinwen). 2010. “청도정양학교, 연변대학 기초교육전진기지로.”(Qingdao JungYanghaggyo, Yanbian Daehag Gicho Kyoyuk Jeonjin Giji-ro) 『길림신문』(Jilin Xinwen)(8월 16일)
http://www.jlxcwb.com.cn/edu/content/2010-08/16/content_9867.htm (검색일: 2013.12.20).

. 2012. “청도조선족 공립학교 설립 고대한다.”(Qingdao Chosunjok Gonglib haggyo Seollib Godaehanda) 『길림신문』(Jilin Xinwen)(12월 24일)
http://www.jlxcwb.com.cn/edu/content/2012-12/24/content_100752.htm(검색일: 2013.12.20).

. 2013. “공립학교설립 우리 자신부터 나서야.”(Gonglib hakgyeo Seollib Uri Jasin-buteo Naseoya) 『길림신문』(Jilin Xinwen)(11월 14일)
http://www.jlxcwb.com.cn/news/content/2013-11/14/content_124717.htm(검색일: 2013.12.20).

연변통보(Yanbia News). 2012. “칭다오 조선족사회, 패러다임이 바뀐다.”(Qingdao, Chosunjok Sahoe, Paradigm-i Bakkwinda) 『연변통보』(Yanbia News)(5월 9일)
http://www.yanbianews.com/bbs/zboard.php?id=news02&page=1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검색일: 2013.12.20).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Zhongyang Renmin Guangbo Diantai Chaoxianyu Guangbo). 2010. “청도시 서원장조선족소학교.”(Qingdao-si Xiyuanzhuang Chosunjok Sohaggyo)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Zhongyang Renmin Guangbo Diantai

Chaoxianyu Guangbo)(11월 15일)

http://www.krcnr.cn/mmz/cxzfs/201011/t20101115_64037.htm(검색일: 2013.03.18).

흑룡강신문(Heilongjiang Xinwen). 2012. “민족교육, 희망의 불씨 살아난다.”(Minzok Kyoyuk, Himang-ui Bulsi Sarananda) 『흑룡강신문』(Heilongjiang Xinwen)(5월 25일)

<http://hljxinwen.dbw.cn/system/2012/05/21/000510220.shtml>(검색일: 2013.12.20.).

青島財經日報(Qingdao Caijing Ribao). 2012. “山東異地高考放開 仍難吸引外地考生.”(Shandong Yidi Gaokao Fangkai Rengnan Xiyin Waidi Kaosheng) 『青島財經日報』(Qingdao Caijing Ribao)

http://epaper.qdcailing.com/cjrb/html/2012-12/15/content_122704.htm(검색일: 2012.12.20.).

新華網(Xinhuanet). 2002. “國務院作出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教育的決定.”(Guowuyuan Zuochu Guanyu Shenhua Gaige Jiakuai Fazhan Minzu Jiaoyu de Jueding) 『新華網』(xinhuanet)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2-08/19/content_529823.htm(검색일: 2013.12.20.).

延邊教育信息資源網(Yanbian Jiaoyu Xinxiziyuan-wang). 2013. “延邊州教育局關於在全州朝鮮族中小學開展朝鮮族民族文化教育的指導意見.”(Yanbian-zhou Jiaoyuju Guanyu Zai Qunzhou Chaoxianzu Zhongxiaoxue Kaizhan Chaoxianzu Minzu Wenhua Jiaoyu-de Zhidao Yijian) 『延邊教育信息資源網』(Yanbian Jiaoyu Xinxiziyuan-wang)

<http://www.ybedu.net/web1/show.aspx?id=588>(검색일: 2013.12.2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Zhongyang Renmin Zhengfu Menhu Wangzhan). 2010. “教育部關於修改和廢止部分規章的決定.”(Jiaoyubu Guanyu Xiugai He Feizhi Bufen Guizhang De Jueding) 『中華人民共

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Zhongyang Renmin Zhengfu Menhu Wangzhan)

http://www.gov.cn/jfg/2010-12/24/content_1772345.htm(검색일: 2013.12.2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Zhongyang Renmin Zhengfu Menhu Wangzhan). 2012. “國務院辦公廳轉發教育部等部門關於做好進城務工人員隨遷子女接受義務教育後在當地參加升學考試工作意見的通知.” (Jiaoyubu Guanyu Xiugai He Feizhi Bufen Guizhang De Jueding)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Zhongyang Renmin Zhengfu Menhu Wangzhan)

http://www.gov.cn/zwggk/2012-08/31/content_2214566.htm(검색일: 2013.12.20).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Jiaoyubu Menhu Wangzhan). 2012. “關於鼓勵和引導民間資金進入教育領域促進民辦教育健康發展的實施意見.”(Guanyu Guli He Yindao Minjian Zijin Jinru Jiaoyu Lingyu Cujin Minban Jiaoyu Jiankang Fazhan De Shishi Yijian)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門戶網站』(Zhonghua Renmin Gongheguo Jiaoyubu Menhu Wangzhan)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5987/201206/138406.html>(검색일: 2013.12.20).

ABSTRACT

Analysis of the New Settlements and Korean Chinese Ethnic Education : Based on the Case Study of Qingdao JungYang School

LI, Xiang-Yu

Ocean University of China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prospect of future Korean Chinese ethnic education by looking into the status of Korean Chinese ethnic education in its new settlemen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chool curriculum was mainly analyzed based on the case study of Qingdao JungYang School. And correlation between the curriculum and the parents' choice of Korean ethnic school, by especially focusing on the variables which determine the behaviors' choice, and the ethnic education contents of old and new settle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orked on the subject without any advanced studies, and that it might be used for the futur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raditional settlements·other new settlements within China·typical Korean settlements overseas.

Keywords Korean Chinese, New Settlements, Ethnic Education, Status, JungYang School, Choice Motive